

Miss Sixty, New York City

미스 식스티, 뉴욕 시티

다자인 스튜디오63 디자인 & 아키텍처 클라이언트 식스티 그룹 시공 부초니 위치 미국 뉴욕 웨스트 브로드웨이 386 용도 리테일 디자인 스토어 면적 270㎡ 진행기간 2002.5 ~ 2002.11 바닥 바니시드 시멘트 벽 플라스터보드 청장 플라스터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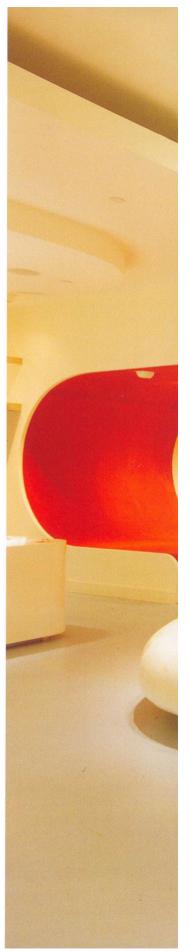
Design Studio63 Design and Architecture Client Sixty Group Builder Buzzoni Srl Location 386 West Broadway N.Y.C. Use Retail Design Store Size $270m^2$ Design Period 2002,5 \sim 2002,11 Flooring Varnished Cement Wall Plasterboard Ceiling Plaster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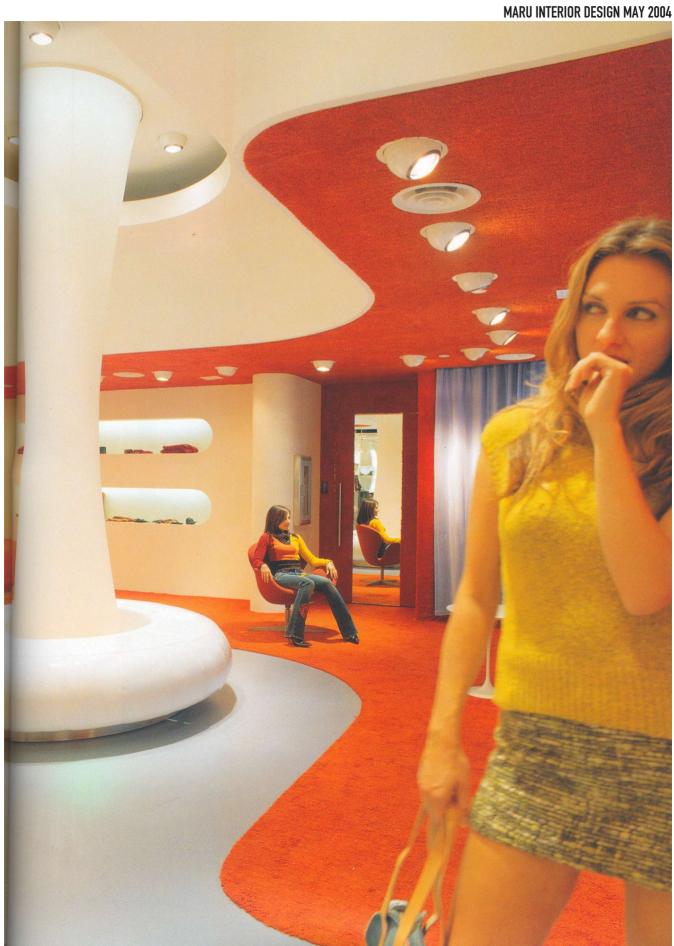
숫자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두 디자인 스튜디오가 1970년대 디자인을 새롭게 재현했다. 패션 아이템을 디자인한 식스티 그룹과 공간을 디자인한 스튜디오63이 함께 만들어낸 미스 식스티의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이다.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 감독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선명한 화이트 모더니즘을 컨셉트로 한 이 패션 매장은 베르너 판톤(Verner Panton)의 가구 디자인과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의 음악 공연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소재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곡선의 화려한 그래픽적 요소는 그 시대의 화려했던 디자인 스타일을 한 눈에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 무화적 차용은 식스티 그룹에서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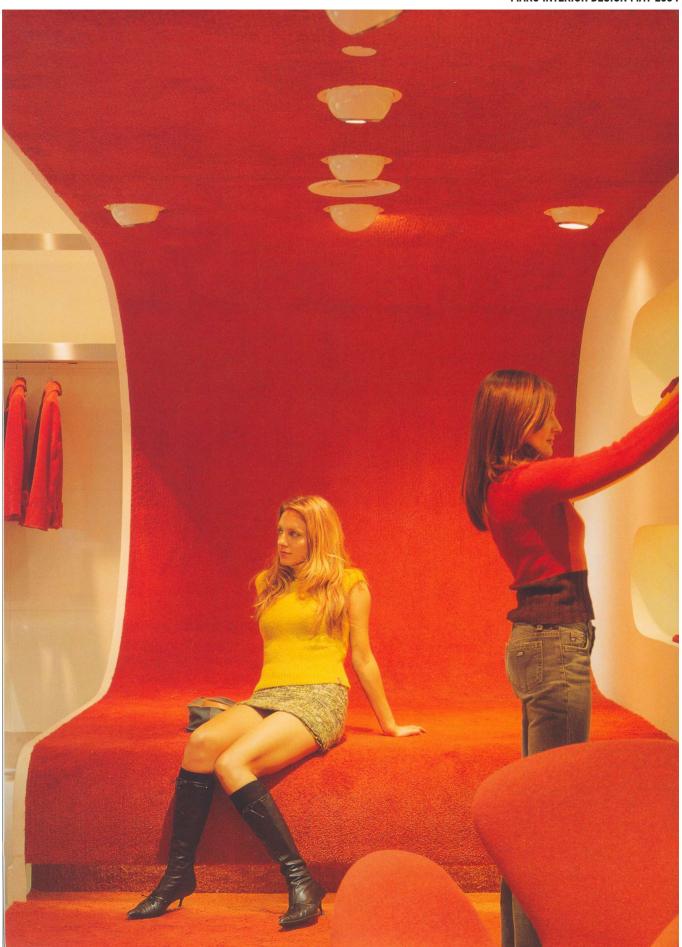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는 젊고 발랄한 여성을 타깃으로 한 패션 브랜드 '미스 식스티'. 강렬한 색상과 패턴으로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 1970년대의 디자인 스타일을 표방한다. 창시자 비키 하산(Vicky Hassan)은 70년대를 뜻하는 미스 세븐티(Miss Seventy)로 브랜드 상표등록을 하려다 상표 중복으로 이름을 바꿔야 했다. 그래서 10년을 앞선 이름을 브랜드로 정했고, 이 숫자와의 인연은 브랜드 매장 디자인까지 이어졌다.

이런 배경으로 탄생한 뉴욕의 '미스 식스타' 매장은 70년대의 화려한 연예계 스타일과 디자인을 떠오르게 하는 환상적이고 매혹적인 분위기로 상상 속 공간을 현실로 나타내고 있다. 차갑고 심플한 느낌의 쇼윈도 배경과 마네킹으로 시작되는 출입구는 내부를 둘러싸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곡선의 입체적인 벽과 디스플레이 선반으로 이어진다. 매장의 중앙을 가로 지르는 기둥 모양의 동그란 벤치와 바닥에서부터 벽을 타고 천장까지 올라간 터널 모양의 소파가 3차원적으로 그려진 그래픽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플라스틱과 같이 가볍고 매끈한 광택이 나는 소재의 가구와 벨벳 소재의 무겁고도 부드러운 느낌의 소파, 피팅룸의 커튼은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 여성적인 라인과 강렬한 젊음을 표현한다. 이처럼 복고적인 요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미스 식스타'는 매혹적인 분위기로 상품과 공간이 서로의 오브제가 되는 감각적인 공간이다.

At Miss Sixty Retail Design Store, you can find a glamorous world of fantastic scenery and an imaginary reality. An organic space designed with curved walls, sculptured counters, soft and cozy surfaces with bright colors, all made to create a reality bigger than life. A space that gives you the freedom to be who ever you would like to be. The freedom to be yourself. Together with the client, Vicky Hassan, the architects have tried to create a dream world inspired by the styles, designs and glamorous entertainment world of the 70's. The reference to the 70's was input by the client and evoked a profound and thorough research that was made later by the architects. The organic forms of the furniture, the colorful bright colors with the shiny varnish, the heavy velvet drapes and the accent lighting, were all made in order to create a warm, feminine and glamorous atmosphere. An atmosphere that reinforces the miss sixty brand as a young and glamorous women's wear. The architects were mostly inspired by the graphic designs of the 70's but not only. They have challenged themselves to transform two-dimensional patterns into three-dimensional structures. Taking patterns from wallpapers, textiles and transforming it into furniture. The contour made by the infinite line of the shelves giving even the merchandise the opportunity to become part of the design. Using the references of the 70's reassures a widely recognizable image with an intelligent com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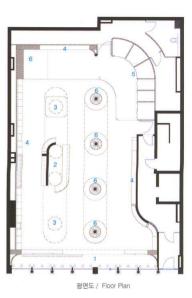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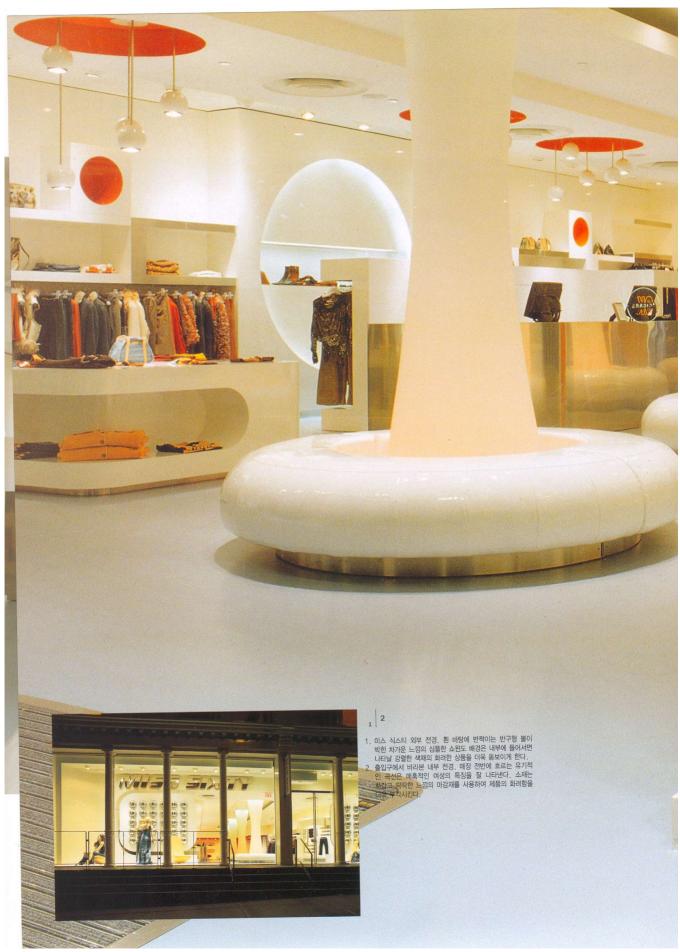
- 1 내부의 휴식공간, 포근한 카펫이 벽을 타고 올라와 천장을 감싸면서 만들어진 매혹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고른 옷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2. 무거운 벨벳 카들으로 된 피달라과 따뜻하고 화려한 느낌의 소파 그리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곡선의 흰 선반들은 1970년대의 그래픽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2차원적인 그래픽 3차원의 공간으로 뛰어나왔다.













Miss Sixty Energie Retail Empo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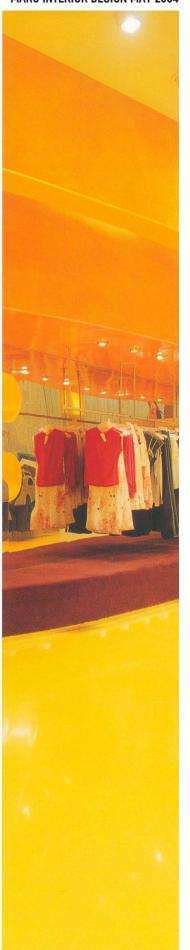
미스 식스티 에너지 리테일 임포리엄

'미스 식스티 에너지 리테일 임포리엄(Miss Sixty Energie Retail Emporium)'은 여성의류 브랜드 '미스 식스티(Miss Sixty)'와 남성의류 브랜드 '에너지 (Energie)'를 함께 판매하는 멀티샵이다. 이탈리아의 패션업체인 식스티 그룹에 속하는 이 두 브랜드는 각자 브랜드의 성격에 맞는 플래그십 스토어 컨셉트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70년대의 디자인 트렌드를 응용한 '미스 식스티' 매장은 반짝이는 소재와 기하학적인 곡선으로 만들어진 강렬하고 여성스러운 공간이다. 젊은 남성을 타깃으로 한 캐주얼 브랜드 '에너지' 매장의 경우는 50년대 가정집 분위기로 직선적인 요소가 사용된 편안하고 심플한 공간이다. 유럽에서부터 아시아에 이르는 전 세계의 매장들은 모두 이와 같은 공통적인 브랜드 스토리와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디자인되며, 상품의 성격과 분위기를 최상으로 부각시켜 준다. 그러나 각 지역의 매장은 매뉴얼화되지 않고, 다양한 개성을 가지도록 디자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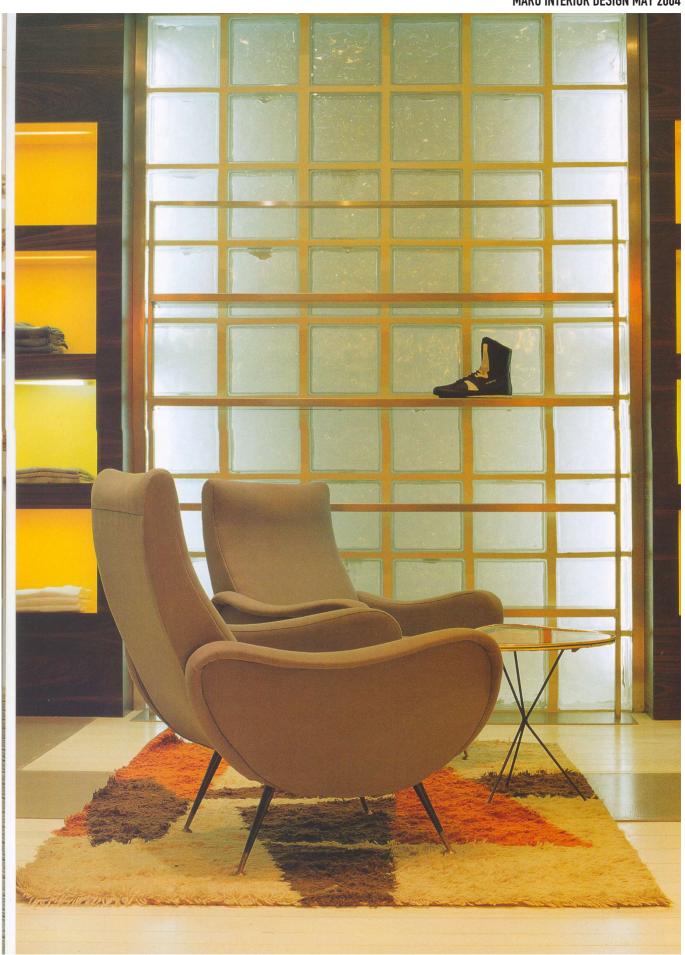
그 중에서도 '미스 식스티' 와 '에너지' 가 결합된 '미스 식스티 에너지 리테일 임포리엄'에서는 서로 다른 두 브랜드와 공간의 요소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한 채 다양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을 볼 수 있다. '미스 식스티' 상품이 있는 공간은 특유의 유선적인 연속을 유지한 채 중성적이거나 유사한 색채가 사용되어 독립매장에서 느껴졌던 강렬함보다는 부드럽고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바닥에 깔린 러그, 가정용 소파와 테이블 등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에너지' 상품의 공간은 심플하고 직선적인 구성 안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어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를 준다. 또, 두 공간 사이의 통로, 복도, 계단 등에 사용된 비누방을 모양의 디스플레이 케이스나 그래픽으로 흐름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두 브랜드의 공용공간이라 할 수 있는 피팅룸이나 라운지, 바 등에서는 두 개의 컨셉트가 완벽하게 섞여 색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Miss Sixty Energie retail Emporium' is the multishop for women's fashion brand 'Miss Sixty' and men's fashion brand 'Energie'. You can relax at the bar or lounge as well as enjoy shopping at two kinds of young casual wears for women and men

At Miss Sixty Zone, you can find a glamorous world of fantastic scenery and an imaginary reality. An organic space designed with curved walls, sculptured counters, soft and cozy surfaces with bright colors, all made to create a reality bigger than life. The reference to the 70's was input by the client and evoked a profound and thorough research that was made later by the architects. The organic forms of the furniture, the colorful bright colors with the shiny varnish, the heavy velvet drapes and the accent lighting, were all made in order to create a warm, feminine and glamorous atmosphere. At 'Energie' Zone, you can find the rational clean and minimal characteristics suitable for the 'Energie' brand as men's wear brand. The space gives 'Energie' human proportions, a familiar atmosphere and a sense of tranquility. That is a public space with the feeling of a private house of the 50's. The references to the 50's used were to all art forms such as cinema, plastic arts and music as well. The aim of this space is to reconstruct evokes the past but is, at the same time, made of up—to—date materials and style. It is furnished and designed with great detail assuring that although the concept remains the same the personal touch is always visible. The fact that almost every country around the world has at one point or another adopted the style of the 50's in architecture, furniture or accessories, has helped in creating an identifiable 'DNA' that is widely recogni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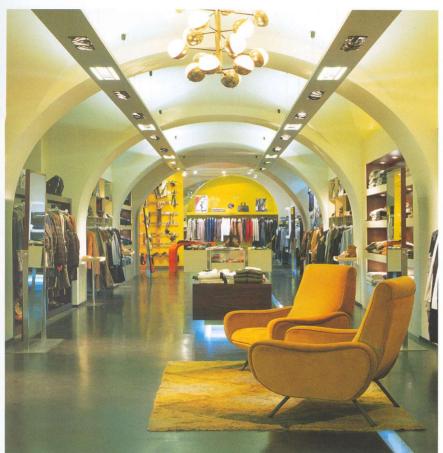
Miss Sixty Energie, Barcelona I 미스 식스티 에너지, 바르셀로나

디자인 스튜디오63 디자인 & 아키텍처 **클라이언트** 식스티 그룹 시공 에어리어 제로, 부초니 위치 스페인 바르셀로나 용도 리테일 임포 리엄 면적 560m^2 진행기간 $2003.6 \sim 2003.12$ 바닥 레신, 시멘트 벽 플라스터보드 천장 플라스터보드

Design Studio63 Design and Architecture Client Sixty Group Builder Areazero, Buzzoni Srl Location Paseo de Gracia n°5 Barcelona Spain Use Retail Emporium Size 560m2 Design Period 2003.6~2003.12 Flooring Resin, Cement Wall Plasterboard Ceiling Plasterboard

- 1 3
- 1,2. 남성 캐주얼 '에너지'의 제품이 진열된 공간, 브랜드 '에너지'의 매장이 추구하는 50년대 풍의 찬속하고 평 운한 분위기에 '미스 식스티' 매장의 발랄한 컬러가 믹 스되었다, 집 안 거실과 같은 인간적인 스케일에 상업 공간 특유의 밝은 색감이 독특하다. 3. 여성 의류 '미스 식스티' 제품이 진열된 공간, 광택과 유기 적 곡선이라는 '미스 식스티' 매장의 공통 요소가 색다른 컬러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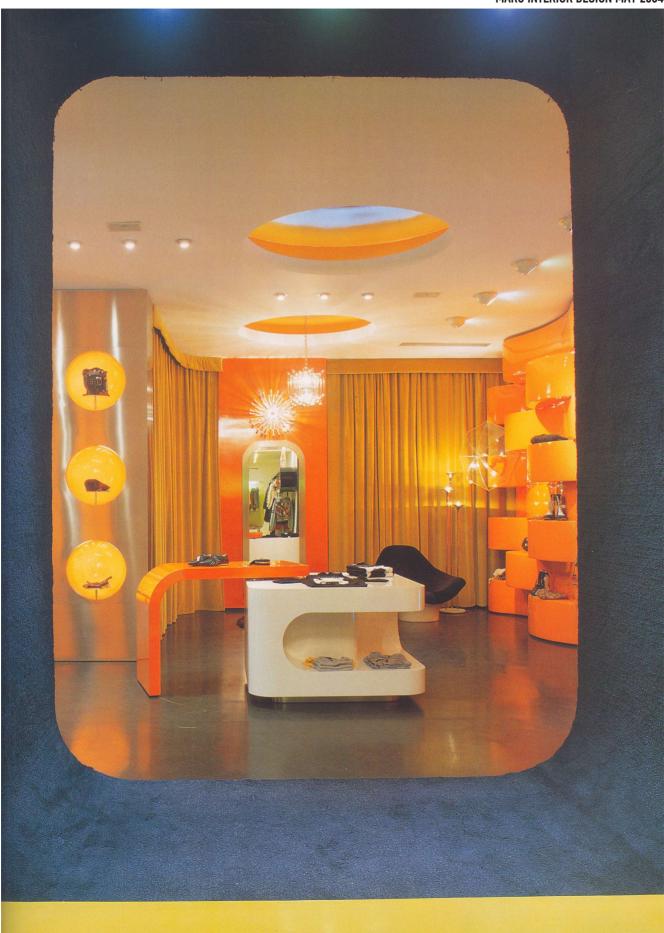


Miss Sixty Energie, Catania I 미스 식스티 에너지, 카타니아

다자인 스튜디오63 디자인 & 아키텍처 **클라이언트** 식스티 그룹 **시공** 에레 코스루치오니 **위치** 이탈리아 카타니아 **용도** 리테일 임포리엄 면적 $400m^2$ 진행기간 $2003.1 \sim 2003.5$ 바닥 레신, 로컬 스톤 벽 플라스터보드 천장 플라스터보드

Design Studio63 Design and Architecture Client Sixty Group Builder Erre Costruzioni Srl Location Via Etnea, 151/153, Catania Italy Use Retail Emporium Size 400m2 Design Period 2003.1 ~ 2003.5 Flooring Resin, Local Stone Wall Plasterboard Ceiling Plasterboard

^{1 (}에너지' 제품과 메인 홀, 중앙의 아치형 홀은 작선적인 느낌의 '에너지' 매장과 유기적인 '미스 식스티' 매장 간의 이질적인 느낌을 완화시켜 준다.
2 개인 거실과 같은 아늑한 분위기의 라운지, 서로 다른 '에너지'와 '미스 식스티'의 컨셉트가 잘 조화되었다.
3. 두 브랜드 매장 사이의 중립적 공간에 해당하는 바.
4. '미스 식스티' 제품이 진열된 공간으로 가는 통로, 강렬한 오렌지 빛의 아기자기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다.







- 기 제단부 통로, 중성적인 느낌을 준다. 2. 캐주얼한 분위기를 강조한 '미스 식스티' 진열 공간. 3. 직선으로 표현된 공간 분할로 차분해진 '에너지' 제품 진 열 공간.

Miss Sixty Energie, Palermo I 미스 식스티 에너지, 팔레르모

다자인 스튜디오63 디자인 & 아키텍처 클라이언트 식스타 그룹 시공 에레 코스루치오니 위치 이탈리아 팔레르모 용도 리테일 임포리엄 면적 $300m^2$ 진행기간 $2003.2 \sim 2003.6$ 바닥 로컬 스톤 벽 플라스터보드 천장 플라스터보드

Design Studio63 Design and Architecture Client Sixty Group Builder Erre Costruzioni Srl Location Via Ruggero VII n°17, Palermo Italy Use Retail Emporium Size 300m² Design Period 2003.2 ~ 2003.6 Flooring Local Stone Wall Plasterboard Ceiling Plasterboard

